

# 빅터앤롤프의 정크아트 패션에 나타난 추의 미의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한 의미 해석

- Spring 2015 ~ Spring 2020, Haute Couture 컬렉션을 중심으로 -

이시현·이지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요약

본 연구는 빅터앤롤프 패션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기호학적 방법을 이용해, 그 기의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추의 미라는 관점에서 분류함으로써, 빅터앤롤프 디자인에서 나타난 정크아트적 특성과 추의 미의 연계성, 그리고 그 의미 변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의 정의와 미적 의의,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살펴보고, 이를 복식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그 범주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정크아트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빅터앤롤프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를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을 이용해 분석한다. 넷째, 앞서 고찰한 추의 미학의 범주를 바탕으로 분석된 각 컬렉션을 분류하고, 정크아트적 특성에 나타난 추의 미와 그 역할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논문, 패션 전문 잡지 기사 및 사진 자료, 빅터앤롤프 공식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그리고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이용한 사례 분석이 병행되었다. 연구 범위는 Spring 2015부터 Spring 2020까지, 오트쿠튀르 컬렉션으로 한정하였으며, Spring 2020, Spring 2017, Fall 2016, Fall 2015, Spring 2015의 5개 컬렉션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추의 범주 중 몰형식성은 다섯 개 컬렉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세부적 특성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부정확성은 Spring 2017 컬렉션을 제외한 나머지 네 컬렉션에서 나타났고, 왜곡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크아트로 표현된 추의 미는 정형화된 일반적 규칙을 깨고 변화와 우연성의 창조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요소 간 조화와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크를 소재로 사용하여 일상 영역과 일탈적 예술 영역의 경계를 해체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유의 의지를 표현한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주제어 : 빅터앤롤프, 오트쿠튀르, 추의 미학, 정크아트,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교신저자: 이지현, ez2@yonsei.ac.kr

접수일: 2020년 8월 28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1일

## I. 서론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인류의 역사에 따라 계속되어 왔다. 미의 추구는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인 예술로서 형상화되어 나타났으며, 패션도 그에 포함되어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미의 기준이란 시대적 상황과 유행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한 것이 곧 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의 기준은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체계를 거부한 작품은 추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름다움과 추함은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학의 학문적 영역이 확립된 19세기 이후 추와 미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853년 카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에 의해 추의 미적 범주가 최초로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미학의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까지 그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패션에 있어서도 추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패션에서 나타난 추는 기존 정형화된 옷의 형식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의 미가 나타나는 패션의 표현양식으로는 아방가르드(Avant-garde), 그로테스크(Grotesque), 해체주의, 정크아트(Junk Art) 등이 있다(An & Yang, 1995; Kim & Park, 2010; Park & Bae, 2012; Seo, 2003). 그중 정크아트는 절대적인 미의 전통을 파괴하고 특히 소재의 표현 영역을 추의 범주까지 확장하고 있어 그 의미가 있으나, 추에 대한 다른 표현 양식들에 비해 아직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Chae & Hyun, 2008; Jung, 2005; Lee, 1997; Lee, 1999).

패션에서 나타난 추의 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빅터앤롤프(Viktor&Rolf)는 그 사례로 가장 빈번하

게 제시되는 브랜드 중 하나로, 1993년 프랑스 이예르(Hyères)에서 개최된 ‘국제 아트 & 패션 페스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e Mode et de Photographie)’에서 선보인 첫 공식적 작품에서 그들 디자인 철학의 기저에 정크아트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빅터앤롤프에 대한 연구들은 아방가르드나 해체주의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Kim, 2010; Kim & Park, 2012), 정크아트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으며, 나아가, 정크아트적 패션 특성에 대한 기호학적 관점의 디자인 의미 분석 연구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Huh, 2002; Kim, 2018).

즉,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며,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대상이 갖는 내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터앤롤프 패션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기호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 그 기표와 기의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추의 미라는 관점에서 분류함으로써, 빅터앤롤프 디자인에서 나타난 정크아트적 특성과 추의 미의 연계성, 그리고 그 의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크아트 및 추의 미학 관련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패션 전문 잡지 기사([www.vogue.com](http://www.vogue.com), [www.wwd.com](http://www.wwd.com)) 및 사진 자료, 빅터앤롤프 공식 홈페이지([www.viktor-rolf.com](http://www.viktor-rolf.com)) 등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그레마스(Greimas) 기호사각형을 이용한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 정크아트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최근 5년 Spring 2015부터 Spring 2020까지의 컬렉션 중, 디자인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오트쿠튀르(Haute Couture) 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고급 문화의 성질을 띠는 오트쿠튀르 컬렉션에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정크아트적 특성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하이패션, 즉, 예술로서 표현된 추의

미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크아트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컬렉션으로 Spring 2020, Spring 2017, Fall 2016, Fall 2015, Spring 2015의 5개 컬렉션을 선정하였으며, 빅터엔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각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추의 미와 패션

#### 1) 추의 미적 의미

‘추하다’라는 것은 ‘옷차림이나 언행 따위가 저분하고 더럽다’, ‘외모 따위가 못생겨서 흉하게 보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Standard Korean Dictionary, n.d.). 예술에서의 추는 미의 존재를 방해하는, 미에 반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고대 플라톤(Platon)은 경멸적인 것과 사소한 모든 것, 즉 궁극적으로 무 존재한 모든 것을 추로 보았으며(Kim & Park, 2010),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희극을 논하며 기형으로서 우스꽝스러운 것을 추의 일종으로 제시하고 있다(An & Yang, 1995). 중세의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us)는 추에 대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대상에 의해 미를 더욱 풍부하게 부여하는 하위 개념적 요소라고 말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추가 형태의 결합과 질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하였다(Kim & Park, 2010). 이처럼 추를 미로 관조하는 시각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추는 미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었고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부터 최악의 개념으로 인식되던 추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그 미적 의의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는 추는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미를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실현을 위한 조건이 된다고 하였으며, 막시밀리안 샤를러(Maximilian Schaler)는 추는 미가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의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기라고 하였다(An & Yang, 1995).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미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 형식이나 총체성은 궁극에 가서는 이데올로기로 변하므로, 현대는 미의 위기이고, 예술의 위기이며,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위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Park & Bae, 2012). 이처럼 추는 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추가 존재함으로써 미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미의 실현 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추는 미적 범주 외의 것이 아니라 미적 범주 내에 있으며 순수미와 반대되는 광의의 미에 속하여 미의 존재를 반증한다. 또한 추는 최대한도로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것으로(An & Yang, 1995), 이로 인해 고통을 주는 동시에 모순된 쾌감을 유발하여 미에 반하는 힘을 나타냄으로써 대상에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대 헤겔(Hegel) 미학의 등장은 이러한 추의 미적 의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1853년, 헤겔학파의 한 사람인 카를 로젠크란츠는 미학 사상 최초로 추를 미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를 풀어내었다(Hyun & Jang, 2012). 그는 자신의 저서 「추의 미학」을 통해서 변증론적인 정(thesis), 반(anti-thesis), 합(synthesis)으로 이어지는 이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추의 미학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의 부정이 추이며 따라서 추는 미의 하위 요소가 아니라 동등한 대립개념이다. 그는 추를 존재 영역에 따라 자연의 추, 정신의 추, 예술의 추로 분류하였으며, 미의 근본 원리가 정신의 자유성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의 근본 원리도 정신의 자유성 부정과 파괴에 있다고 하였

다(Hyum & Jang, 2012). 그는 미적 대상으로서 추를 몰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성으로 분류하였고, 몰형식성은 다시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로, 왜곡은 다시 비속, 혐오, 회화로 나누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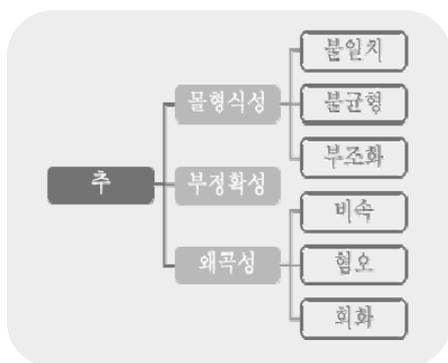


Figure 1.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 2) 패션과 추의 미학

패션이 점차 예술로서 정착되고 이러한 추의 개념이 다각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순히 반항적인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치부되던 복식이 추의 미학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그 의미가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특성을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의 범주에 따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를 중심으로(An & Yang, 1995)’, ‘현대 의상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Kim & Park, 2010)’,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현대 스트리트 패션디자인 연구(Kim, 2019)’ 등이 있다.

An and Yang(1995)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몰형식성을 복식의 외재적 의미로 보았다. 불일치는 패션쇼의 충격 효과, 성의 혼돈, 퇴폐성으로 나타나며 불균형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무시한 특성으로 디자인 원리의 문제, 위치 전환, 구성의 의도적 미숙성, 소재상의 문제로 표현된다. 부조화는 복식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있어 기존의 개념을 벗

어난 것으로, 착의의 모순, 신체의 과장으로 실현된다. 부정확성은 내재적 의미로 파악하여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 예술적 불완전성으로 나타난다. 왜곡의 비속은 정신의 저속화, 통속성, 과장성, 속물적, 퇴폐적인 것으로, 혐오는 인간성 말살, 죽음, 공포, 고통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며 회화는 이상과의 모순, 유희성, 의외성, 냉소를 표현한다.

복식에서의 몰형식성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면,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에 의한 부조화, 착의 순서의 파괴와 겹쳐 입기에 의한 무형태성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정확성은 비구조적인 형태와 불규칙한 단처리, 수직과 수평의 파괴로 나타나며, 왜곡성은 신체의 과장, 의식적인 과장성, 질서와 조화를 무시한 변형으로 표현된다(Kim & Park, 2010).

추의 범주는 무형식, 부정확성, 형태 파괴 및 기형(Kim, 2019)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무형식은 원래의 형식을 파괴하는 무형, 불균형으로 인한 차이의 기형인 비대칭, 서로 어울리지 않은 불규칙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부조화로 분류하였다. 부정확성은 보편적 의미에 대한 이탈, 기본 양식에 대한 모순으로 여러 예술 양식의 혼합, 그리고 고유성에 반하는 오류에 따른 불분명함으로 해석하였으며, 형태 파괴 및 기형은 비속, 혐오, 캐리커처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추의 특성은 크게 몰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몰형식성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 왜곡은 비속, 혐오, 회화의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의 미적 특성과 방법에 대한 해석을 다음 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Table 1).

## 2. 정크아트와 패션

### 1) 정크아트의 정의 및 의미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명과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풍족한 물질문명과 함께 그 정형화된 구

Table 1. 패션에 적용된 추의 미학.

항목	세부항목	내용
물형식성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li> <li>· 형태와 형태의 불일치</li> <li>· 퇴폐성</li> <li>· 정형화된 패션의 규칙을 깬</li> </ul>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과 실용성을 무시</li> <li>· 경계의 부재로 인한 모호함</li> <li>· 무질서, 난잡성</li> <li>· 기본적인 형태의 파괴, 비대칭</li> </ul>
	부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결합</li> <li>· 착의 순서의 파괴, 겹쳐 입기</li> <li>·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li> </ul>
부정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li> <li>· 심리적/정신적 면만을 도출</li> <li>· 성, 나이, 시간, 공간 등의 모호함</li> <li>· 변화, 우연성, 임의성</li> <li>· 예술적 불완전성</li> </ul>
왜곡	비속	· 정신의 저속화, 과장성, 퇴폐성
	혐오	· 인간성 말살, 죽음, 공포, 고통
	희화	· 이상과의 모순, 냉소

조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획일화된 인간의 사고와 산업폐기물의 홍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 및 재창조를 위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예술에서는 도시 문명 자체가 창작을 위한 소재가 되어 이러한 사회 현실이 반영된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시 문명을 소재로 하여 일상생활의 오브제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은 절대적인 미의 전통을 파괴하고 기존의 개념을 무너뜨려 예술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사회적으로 저속하다 여겨지거나 평범하고 배척되던 것들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현대 물질 사회의 새로운 예술 양식인 정크아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크아트란 폐물, 잡동사니, 고철 등 현대 사회에서 버려진 물체 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스크랩 아트(Scrap Art)라고도 불리며(Lee, 1999), 버려진 폐기물을 예술작품의 표현매체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정크란 못 쓰는 물건, 부서지고 버려진

것,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의 물건,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의 물체들을 일컫는다. 20세기 이후 서로 다른 오브제들이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미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아상블라주(Assemblage) 미술이 확대됨에 따라 정크를 소재로 이용한 예술 분야인 정크아트가 탄생되었으며,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에 의해 최초로 명명되었다(Lee, 1997).

정크아트는 현대 도시문명의 물질문화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미적 개념을 파괴하고 무가치하다 여겨지는 소외된 물체들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추의 개념에 그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편적 오브제로 전체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작가의 창작력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표현 양식이며, 생활 속에 흔히 있는 정크의 일상적 이미지를 작품 속에 반영시킴으로써 예술과 일상, 작품과 현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예술을 일상생활 속으로 접근시킨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2)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

정크아트가 예술 표현양식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면서 패션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타 예술 분야와는 다르게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표현과 형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 선행연구로는 ‘20세기 후반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Lee, 1997)’, ‘현대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나타난 정크아트적 디자인의 특성(Lee, 1999)’, ‘정크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Jung, 2005)’ 등이 있다.

Lee(1997)는 패션 작품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조형미를 정크 소재 자체의 응용을 통한 방법과 정크 이미지의 표현적인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크 소재의 응용 방법으로는 자연물에서 얻어지는 나무껍질이나 나뭇잎, 동물의 깃털 등의 이용, 혹은 일상용품, 산업적인 부산물 등의 폐기물과 폐품을 소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크 이미지의 표현은 폐품을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크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낡아 보이는 듯한 퇴색된 옷감, 의도적인 구멍이나 올 풀림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정크아트의 표현 방법에 초점을 맞춘 Lee(1999)는 헨리 라스무센(Henry Rasmusen)과 아트 그랜트(Art Grant)가 정립한 정크아트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표현 방법을 빈곤적 특성, 기계적 특성,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빈곤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진 것을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지지 분하고 빈곤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패치워크, 올 풀림, 구멍, 일상용품의 폐품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계적 특성은 산업 부산물을 이용하거나 산업 부산물 가공을 통해 나타난 기계미를 의미하며, 예시로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이나 신소재 사용 등이 있다. 자연적 특성은 자연 부산물을

이용하거나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조개껍질이나 돌, 털, 이빨 등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Jung(2005)은 정크 소재의 사용과 정크 이미지의 표현 방법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패션에 응용된 정크 이미지를 자연적 재료를 이용한 정크 이미지, 일상적 재료를 이용한 해학적 정크 이미지, 낡고 퇴색한 느낌을 이용한 정크 이미지, 폐기물을 이용한 정크 이미지로 분류한다. 또한, 정크아트적 표현 방법은 패치워크나 콜라주(collage)로 표현되는 콤바인(combine)에 의한 표현, 단편들이 모이는 집합과 집적의 표현, 여러 버려진 파편의 조립과 동일한 요소들의 압축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빅터 앤롤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특성을 추의 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빅터앤롤프와 정크아트

빅터앤롤프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듀오로,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해체하는 실험적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공동 설립자이자 디자인 파트너인 빅터 호스팅(Viktor Horsting)과 롤프 스노렌(Rolf Snoeren)은 네덜란드 아르테즈 예술학교(Artez Institute of the Arts)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이후 1998년 첫 번째 오트쿠튀르 컬렉션을 통해 파리 패션위크에 데뷔하였다. 빅터앤롤프는 끝없는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첫 등장부터 기존의 질서와 고정관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1993년 프랑스 이에르에서 개최된 ‘국제 아트 & 패션 페스티벌’에서 주요 상 3개를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작품은 그들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내포한 디자인 철학을 표출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 ‘존재하는 옷들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스팅글 소재 옷감이 의도적으로 낡고 찢어진 듯 표현되어 정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나타



Figure 2. Heritage.  
From Viktor&Rolf. (1993).  
<http://www.viktor-rolf.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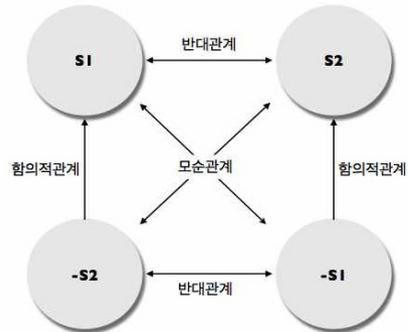


Figure 3.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From Lee et al. (2013). p. 137.

냄과 동시에 무너지고 망가진 것에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종류의 미를 표현하였다(Ishizeki, n.d.).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크아트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 패션디자이너로서, 빅터앤롤프의 작품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그레마스 기호사각형과 의미분석

#### 1) 이항대립과 동위성 분석

기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이 놓여있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러한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획득하고 해석하였다. 그레마스는 표면적 의미와 의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한 의미뿐만 아니라 내재적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론화하였다. 동일한 의미의 어휘소들의 반복적 양상을 통해 일관성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동위성이라 하고, 파악된 의미들 중 대립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통해 서로 규정되는 것을 이항대립이라 한다(Kim & Lee, 2015). 이항대립은 상징 구조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차이점이나 대립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삶과 죽음, 직선과 곡선, 빛과 어둠 등과 같이 대상은 반대되

는 의미와의 비교, 즉 대립적 의미의 존재를 통해 본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그레마스는 기호사각형이라 불리는 의미생성 모형을 제시하고, 동위적으로 확장된 의미들의 이항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각형 안에 배치하여 의미들 간의 관계와 의미생성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Shin(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의 의미관계의 범주는 두 개씩 짝을 지어 서로 대립, 모순, 보완, 및 내포의 관계를 맺는다. S1과 S2, -S1과 -S2는 반대의 관계이며, S1과 -S1, S2와 -S2는 모순적 관계를 맺고, S1과 -S2, S2와 -S1은 보완적이거나 내포적인 관계에 있다(Figure 3).

본 연구에서는 그레마스의 의미생성 모형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상 그 자체의 단독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네 개 범주 간 관계의 분석을 통해 대상의 내재된 의미를 폭넓게 파악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석되는 의미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단일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의해 인지되는 요소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고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패션디자인의 경우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색채, 실루엣, 디테일, 아이템 등의

시각적 조형 기호들의 동위성 분석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복의 조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디자인 인스퍼레이션(inspiration), 소재, 생산 과정 등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의 요소를 포함하여 각 컬렉션별 디자이너가 의도한 정크아트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 III. 빅터앤롤프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과 추의 미

#### 1. 연구 방법

생활 속에 흔히 존재하는 것을 오브제로 선택하거나 버려지고 무가치한 것을 소재로 하는 등, 정크아트의 특성을 보이는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여 온 빅터앤롤프 패션 컬렉션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기표와 내재된 기의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여 그 유형적 특성을 정의하였다. 정크아트 패션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를 추의 미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정크아트와 추의 미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도출해내고, 다른 표현 영역과는 차별화되는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선정 기준은 앞서 살펴본 정크아트의 대표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디자인으로, <Table 2>와 같이 소재, 주제, 활용 기법의 3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선정 방법은 패션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8명의 리뷰를 통해, Spring 2015부터 Spring 2020까지의 오프쿠튀르 컬렉션 중, 3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이 명확히 나타난 컬렉션을 선별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표 이미지는, 빅터앤롤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 선별된 작품은 Spring 2020, Spring 2017, Fall 2016, Fall 2015, Spring 2015의 5개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였다. 공식 웹사이트와 패션 전문 잡지 기사 등을 통해 각 컬렉션의 디자인 콘셉트, 형태적 특징, 제작 방식 등 시각적인 조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각 컬렉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 해석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각 키워드별 동위성과 의미생성구조를 분석하고 그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Table 1>에서 정리한 추의 미학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 2. 빅터앤롤프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 분석

##### 1) Spring 2020

‘Patchworks’라는 제목의 Spring 2020 컬렉션은 로맨틱한 순수함과 강인함의 조합이 돋보이는 컬렉션이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Laura Ingalls Wilder)의 ‘Little House on the Prairie’와 홀리 하비(Holly Hobbie)의 70년대 일러스트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자유롭게 흐르는 듯한 드레스와 망토, 앞치마, 리플, 크로세 리본을 이용한 장식이 특징적이다. 맥시부터 미니까지 다양한 길이의 드레스들이 보이며 ‘Love’, ‘Peace’ 등의 메시지를 전하는 타

Table 2. 대상 선정 기준.

항목	내용
소재	못쓰는 물건, 부서지고 버려진 것, 기능을 상실한 물건 등을 소재로 사용한 디자인
주제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물건 또는 자연물과 일상용품의 폐품이 주제로 선택된 디자인
활용 기법	패치워크, 구멍, 낡은 느낌 등 인위적으로 ‘정크’의 느낌이 표현된 디자인

투와 글래머러스한 메이크업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는 빅터앤롤프 패브릭 샘플 아카이브(fabric sample archive)에서 지난 컬렉션들을 디자인하며 축적된 패브릭 스와치들을 소재로 하였으며, 크고 작은 형질 조각을 이어 붙여서 커다란 하나의 조각을 만드는 패치워크(Naver Dictionary, n.d.)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4>와 같으며, ‘조각’과 ‘군집’, ‘패치워크’와 ‘솔리드’를 이항대립적 요소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각기 다른 다양한 패브릭 조각들로 구성된 드레스는 조각들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각 조각은 본래의 옷감의 단절된 일부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를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조각들이 합쳐져 군집을 이루고 그 합쳐진 방식과 표현 방법에 따라 구별된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상반신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졌으며, 어깨의 스트랩은 타이트한 러플로 표현되어 나머지와 구분된다. 드레스 밑단은 강한 세로 스트라이프 형태로, 시접을 밖으로 하여 형성된 가로선에 의해 위와 분리되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밑단은 큰 부피감과 반복적 패턴으로 시선의 우선성을 가지며 무게중심을 하반신에 집중시키고 있다. 즉, 다양한 조각들이 합쳐져 군집을 이루고, 그 군집



Figure 4. Viktor&Rolf Spring 2020. From Viktor&Rolf. (n.d.a). <http://www.viktor-rolf.com>



Figure 5. 조각과 군집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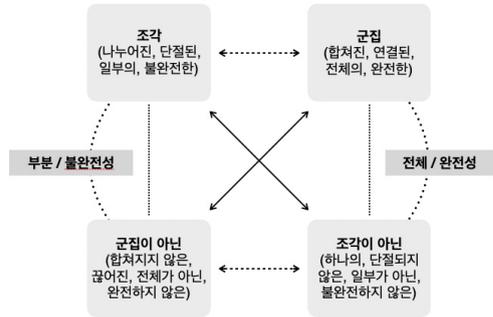


Figure 6. 조각과 군집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드레스’라는 완전한 전체를 이룬다. ‘조각’과 ‘군집’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5>와 같다. ‘조각’은 ‘나누어진’, ‘단절된’, ‘일부’, ‘불완전한’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군집’은 ‘합쳐진’, ‘연결된’, ‘전체’, ‘완전한’으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이용해 도출한 의미생성 구조는 <Figure 6>과 같으며, ‘부분’과 ‘불완전성’, 그리고 ‘전체’와 ‘완전성’이 대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패치워크 기법이 사용되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각각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채로운 패브릭 스와치들이 조합되었다. 사용된 스와치들은 패턴의 크기와 형이 비슷해 유사성을 띠며 개방적이고, 동일한 차원에 속한 상호 연관된 형태로 이루어진 공간통합형의 성질을 띠며 특히 상반신의 복잡하고 불규칙한 결합은 깊이감을 더한다. 즉, 크기, 색상, 모양이 각기 다른 조각들이 혼합되어 어우러짐으로써 우연한 조합에서 오는 의외성, 그리고 버려지는 패브릭 조각들의 상호관계성이 형성된다. ‘패치워크’와 ‘솔리드’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7>과 같다. ‘패치워크’는 ‘다채로운’, ‘혼합된’, ‘어우러진’, ‘상호관계성’으로 확장하였으며 ‘솔



Figure 7. 패치워크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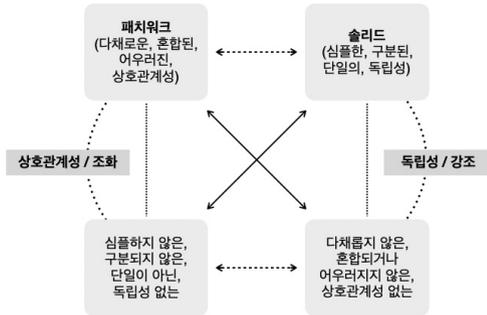


Figure 8. 패치워크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리드'는 '심플한', '구분된', '단일의', '독립성'으로 확장하였다. 기호사각형을 통해 도출한 의미생성 구조는 <Figure 8>과 같으며, '상호관계성'과 '조화', 그리고 '독립성'과 '강조'가 대립되는 구조로 분석되었다.

## 2) Spring 2017

'Boulevard of Broken Dreams'라는 제목의 Spring 2017 컬렉션은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을 다시 붙여서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는 '킨츠키(Kintsugi)'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다. 인체의 실루엣을 따라가면서도 부분적으로 부피감을 준 비대칭적 형태, 파스텔 색감과 원색의 혼합적 사용으로 빈티지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을 주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손상된 빈티지 드레스를 기본 재료로 했고, 그 찢어진 조각들을 콜라주 하여 새로운 드레스로 완성했다는 것이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9>와 같으며, '평평함'과 '풍성함', '빈티지 드레스'와 '금색 테두리'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평평한 드레스 부분과 인체의 구조와 상관없이 풍성한 툴(tulle) 부분이



Figure 9. Viktor&Rolf Spring 2017.  
From Viktor&Rolf. (n.d.b).  
<http://www.viktor-rolf.com>

대조된다. 드레스 부분은 튀어나온 곳 없이 평면적이며 매끈하여 모두 같은 차원에 속한 것으로 인지된다. 반면 풍성한 툴 부분은 입체적이고, 주름진 재질감이 강조되어 시선의 우선성을 가지며 상의의 드레스 부분과 분리되어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평평함'과 '풍성함'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10>과 같다. '평평함'은 '평면적', '매끈한', '부피감 없는', '후퇴'로 의미를 확장하였고, '풍성함'은 '입체적', '튀어나온', '부피감 큰', '전진'으로 확장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해 살펴본 의미생성 구조는 <Figure 11>과 같으며, '평면적'이고 '형태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입체적'이고 '인위적 형태감'을 갖는 것이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빈티지 드레스를 베이스로 한 이 드레스는 낡아서 찢어진 구멍들을 그대로 살려서 복원한 디자인이다. 낡은 부분을 가리고 새것으로 덮는 일반적인 복원 방법과는 달리 금색의 테두리를 두름으로써 오히려 드레스의 흉터를 밖으로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다. 금색의 상징적 의미가 더해져 손상되어 본래 옷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드레스는 전보다 개선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복원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빈티지 드레스'와 '금색 테두리'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12>와 같다. '빈티지 드레스'는 '세월에 낡은', '찢어진', '손상된', '기능을 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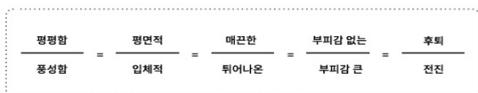


Figure 10. 평평함과 풍성함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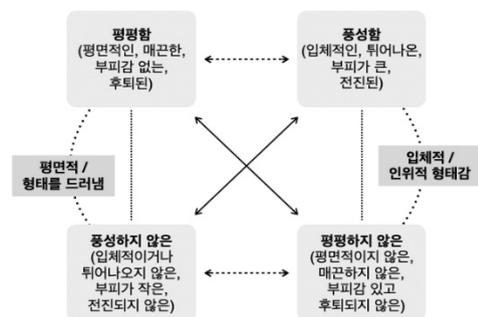


Figure 11. 평평함과 풍성함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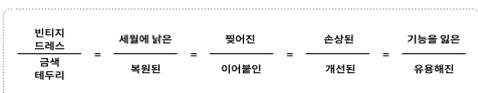


Figure 12. 복원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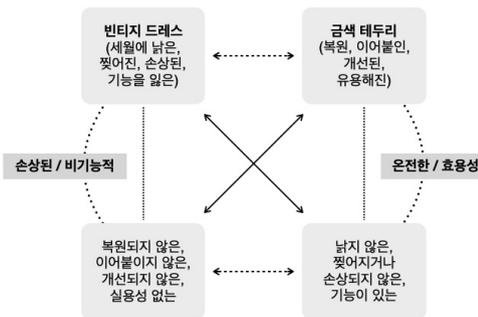


Figure 13. 복원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은'으로 확장하였고 '금색 테두리'는 '복원된', '이어 붙인', '개선된', '유효해진'으로 확장하였다. 기호사각형을 통해 도출한 의미생성구조는 <Figure 13>과 같으며, '손상된', '비기능적'인 것과 '온전한', '효용성' 있는 것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Fall 2016

'Vagabonds'라는 제목의 Fall 2016 컬렉션은 제



Figure 14. Viktor&Rolf Fall 2016.  
From Viktor&Rolf. (n.d.c).  
<http://www.viktor-rolf.com>

목처럼 미스매치된 피스들의 조합과 찢어지고 헤진 느낌, 손으로 꿰맨 느낌이 두드러지는 컬렉션이다. 단추와 비즈 등으로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장식적 느낌을 주고 있으며 부피감 있는 형태와 질감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는 지난 시즌들의 옷을 업사이클링하여 소재로 사용한 점, 그리고 위빙(waving)과 콜라주를 통해 오트쿠튀르의 기본 정신인 핸드메이드 개념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점이 있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14>와 같으며, '수공예'와 '기계 생산', '재활용된 것'과 '재활용되지 않은 것'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패브릭을 찢고 손으로 엮어서 수공예로 만든 이 드레스는 패브릭 조각들이 무작위로 섞여 엮여 있으며 일정한 규칙 없이 변칙적인 특성을 보인다. 엮은 강도와 패브릭 조각의 굵기를 조절하여, 허리에서 가장 작고 타이트한 위빙의 크기가 상체와 치마 쪽으로 점점 크게 퍼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체와 치마의 재질감과 부피감이 더욱 강조되어 전체적인 실루엣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다양한 컬러와 질감의 소재들이 자유분방하게 섞여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틀에 박히지 않은 구성이 물질적인 것보단 감성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수공예'와 '기계 생산'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15>와 같다. '수공예'는 '오가닉



Figure 15. 수공예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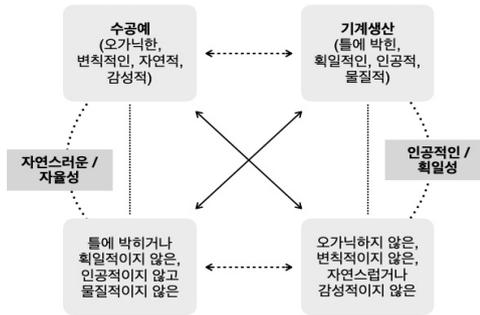


Figure 16. 수공예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한, ‘변칙적인’, ‘자연적’, ‘감성적’으로 의미를 확장하였고, ‘기계 생산’은 ‘틀에 박힌’, ‘획일적인’, ‘인공적’, ‘물질적’으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를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에 적용한 것이 <Figure 16>과 같으며, 그 결과 ‘자연스러운’, ‘자율성’과 ‘인공적인’, ‘획일성’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색되어가는 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재활용은 사전에 그 물체에 대한 이해와 관찰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필요 없어진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본 용도 외의 다른 쓰임새를 모색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시즌이 지나가 점차 잊혀가는 과거 컬렉션들의 옷을 탐색하고 그것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이 드레스는 수많은 과거 컬렉션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난 옷들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재활용된’ 것과 ‘재활용되지 않은’ 것의 동위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17>과 같다. ‘재활용된’은 ‘응용된’, ‘재구성’, ‘창의적 재사용’, ‘지속’으로 확장하였으며 ‘재활용되지 않은’은 ‘있는 그대로의’, ‘분해’, ‘재료로 환원’, ‘퇴색’으로 확장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해 살펴본 의미생성 구조는 <Figure 18>과 같으며, ‘지속성’과 ‘창의성’, 그리고 ‘비지속성’과 ‘환원’이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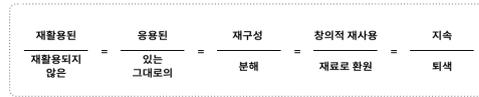


Figure 17. 재활용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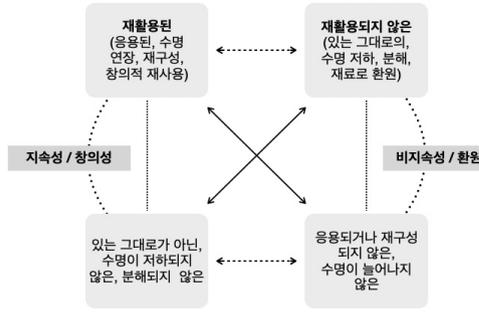


Figure 18. 재활용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성’, 그리고 ‘비지속성’과 ‘환원’이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4) Fall 2015

‘Wearable Art’라는 제목의 Fall 2015 컬렉션은 네덜란드 황금기의 바로크풍 회화와 액션 페인팅 (action painting)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얀 캔버스로 시작하여 마지막 옷에서 완성된 그림이 되는 순서로, 기본적인 테넨 의상 위에 액자를 입히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각지고 꺾인 프레임은 비현실적 형태와 비율을 가지며 레이저 커팅과 레이어링으로 액션 페인팅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액자가 그대로 옷이 됨으로써 예술과 패션을 동일시한, 둘의 경계를 오가는 변형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19>와 같으며,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 ‘액자 드레스’와 ‘액자’를 이항대립적 요소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중한 관찰을 통해 완성되는 정물화는 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그린 것으로 정적이며, 네덜란드 황금기의 화풍이 더해져 어둡고 장엄한 느낌을 전달한다. 액션 페인팅은 페인트를 뿌리는



Figure 19. Viktor&Rolf Fall 2015.  
From Viktor&Rolf. (n.d.d).  
<http://www.viktor-rolf.com>

동적인 움직임 중심을 이루어지는데 정물화 위에 하얀색 페인트가 뿌려진 듯 표현되어 정적인 그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즉흥적인 느낌을 더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실 묘사를 통해 정형성을 띠는 정물화와 동적인 움직임으로 우연성을 갖는 액션 페인팅이 하나의 액자 안에 표현된 것이다.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20>과 같다. ‘정물화’는 ‘관찰’, ‘정적’, ‘신중함’, ‘정형성’으로 확장하였고 ‘액션 페인팅’은



Figure 20.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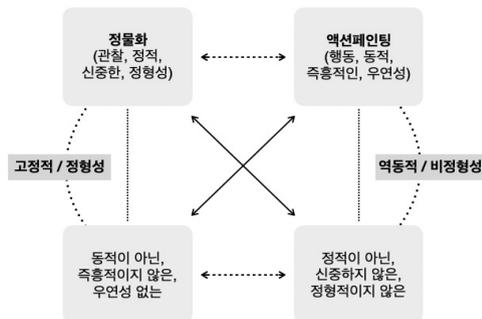


Figure 21.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행동’, ‘동적’, ‘즉흥적인’, ‘우연성’으로 확장하였다. 기호사각형을 통해 도출한 의미생성구조는 <Figure 21>과 같으며, ‘고정적’, ‘정형성’과 ‘역동적’, ‘비정형성’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자 드레스는 실제 액자가 기형으로 부러진 듯 표현되었으며 각지고 꺾인 액자 프레임이 형성하는 모서리와 단단하게 고정된 형태는 일반적 복식의 구성과 구별되어 비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반면 드레스의 원형인 그림 액자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액자의 형태를 가진다. 현실의 벽에 걸려있을 법한 액자가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액자 드레스로 변형되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일반적 액자가 갖는 일상성과 액자 드레스가 갖는 일탈성이 갖는 공유성이 표현되었다. ‘액자 드레스’와 ‘액자’가 갖는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22>와 같다. ‘액자 드레스’는 ‘기형의’, ‘왜곡된’, ‘비현실적’, ‘일탈성’으로 확장하였고, ‘액자’는 ‘원형의’, ‘실제의’, ‘현실적’, ‘일상성’으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그레마스 사각형을 이용해 살펴본 의미생성구조는 <Figure 23>과 같으며, ‘왜곡’, ‘일탈성’과 ‘현실’, ‘일상성’이 대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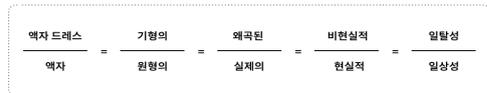


Figure 22. 액자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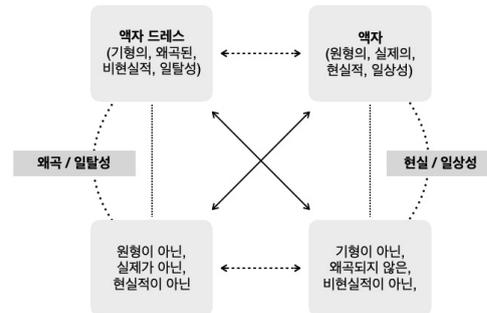


Figure 23. 액자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5) Spring 2015

반 고흐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Van Gogh Girls’가 주제인 Spring 2015 컬렉션은 플라워 프린트의 베이비돌 드레스, 밀짚모자와 플립플롭(flip-flop)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밀짚모자의 크기는 컬렉션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확대되어 옷과 연결되며 컬러링 북을 연상시키는 플라워 프린트 역시 점진적으로 색이 채워지는 구성으로 디자인되었다. 패브릭 패턴으로 존재하던 꽃이 옷 밖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점, 또한 2차원과 3차원의 혼합으로 형태의 경계가 모호해진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24>와 같으며, ‘확산된’ 것과 ‘제한된’ 것, ‘프린트’와 ‘꽃’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밀짚모자와 드레스가 인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옷’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드레스의 꽃 프린트가 밖으로 흘러넘치듯 표현되었다. 발산의 느낌을 주며 흘러넘친 꽃들은 과장되게 뻗어 나온 밀짚모자와 맞닿아 전체가 연결된 느낌을 주며, 따라서 각 경계가 모호해져 전체가 하나로 인식된다. 기존 경계를 이탈하여 옷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 공간까지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틀을 깨고 나옴으로써 전형적 질서와 속박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가 표현되었다. ‘확산된’ 것과 ‘제한된’ 것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25>



Figure 24. Viktor&Rolf Spring 2015. From Viktor&Rolf. (n.d.e). <http://www.viktor-rolf.com>



Figure 25. 확산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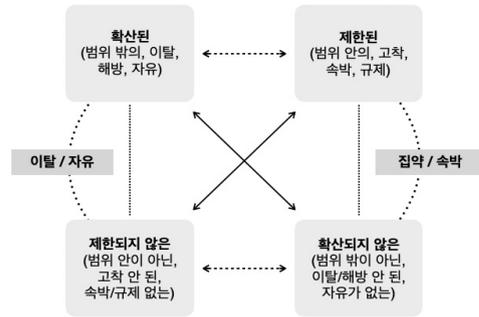


Figure 26. 확산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와 같다. ‘확산된’은 ‘범위 밖의’, ‘이탈’, ‘해방’, ‘자유’로 의미를 확장하였으며, ‘제한된’은 ‘범위 안의’, ‘고착’, ‘속박’, ‘규제’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를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에 적용한 결과 <Figure 26>과 같이 ‘이탈’과 ‘자유’, 그리고 ‘집약’과 ‘속박’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 속 프린트와 밖으로 나온 조형물은 동일한 색과 텍스처로 인해 같은 연장선상의 것으로 인식된다. 2차원의 프린트 속 꽃이 3차원의 형태를 이루어 평면이 입체가 되는, 가상의 것이 구체화되어 현실의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초현실적 느낌을 전달한다. 실체가 있는 형성물이 된 꽃은 중력을 거스르며 위로 솟구치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고, 일정한 규칙 없이 유동적으로 구성되어 의지를 가진 생물과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프린트’와 ‘꽃’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27>과 같다. ‘프린트’는 ‘2차원’, ‘가상’, ‘실체가 없는’, ‘무생물’로 확장하였으며 ‘꽃’은 ‘3차원’, ‘현실’, ‘실체가 있는’, ‘생물’로 확장하였다.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살펴본 의미생성구조는 <Figure 28>과 같으며, ‘가상의 것’과 ‘비존재’, 그리고 ‘실체의 것’과 ‘생명력’이 대비된다고



Figure 27. 프린트와 꽃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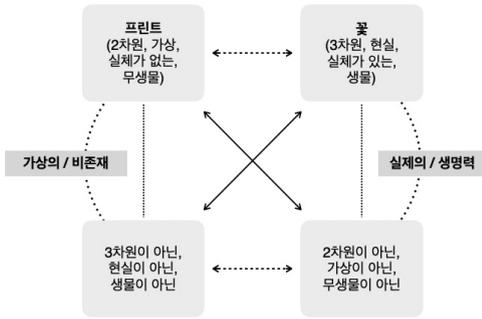


Figure 28. 프린트와 꽃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해석되었다.

이상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활용해 분석한 빅터앤플롭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다음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 3. 추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정크아트 패션 특성 및 의미

그레마스의 의미생성구조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컬렉션을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패션에 표현된 추의 미학’(Table 1)의 범주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류하였다.

Spring 2020 컬렉션에서 부분은 불완전성을 띠고 전체는 완전성을 띠는데, 이는 즉 불완전한 부분이 모여 균집을 이루면 완전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컬렉션에서 사용된 패치워크 기법의 경우에도 각각 불완전성을 띠는 여러 패브릭 조각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드레스를 이룸으로써 완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균집을 이룬 패브릭 조각들 사이에는 상호관계적 특성이 형성되며 이는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채로운 패브릭 조각들이 임의로 배치되어 우연한 조합에서 오는 의외성, 그리

Table 3. 빅터앤플롭 컬렉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조형특성과 의미분석.

컬렉션	정크아트적 특성	동위성 분석	이항대립적 의미
Spring 2020	-소재: 버려지는 패브릭 스와치 -표현: 패치워크, 올 풀림	조각 (나누어진, 단절된, 일부, 불완전한) 균집 (합쳐진, 연결된, 전체, 완전한) 패치워크 (다채로운, 혼합된, 어우러진, 상호관계성) 솔리드 (심플한, 구분된, 단일의, 독립성)	부분/불완전성 전체/완전성 상호관계성/조화 독립성/강조
Spring 2017	-소재: 오래된 빈티지 드레스 -주제: 깨진 도자기를 이어 붙이는 킨츠키 기법 -표현: 폴라주, 찢어진 부분을 강조	평평한 (평면적, 매끈한, 부피감 없는, 후퇴) 풍성상 (입체적, 튀어나온, 부피감 큰, 전진) 빈티지 드레스 (세월에 낡은, 찢어진, 손상된, 기능을 잃은) 금색 테두리 (복원된, 이어 붙인, 개선된, 유용해진)	평면적/형태를 드러냄 입체적/인위적 형태감 손상된/비기능적 온전함/효용성
Fall 2016	-소재: 지난 컬렉션을 재활용 -표현: 워빙 기법, 찢어짐, 올 풀림	수공예 (오가닉한, 변칙적인, 자연적, 감성적) 기계 생산 (틀에 박힌, 획일적인, 인공적, 물질적) 재활용된 (응용된, 재구성, 창의적 재사용, 지속) 재활용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분해, 재료로 환원, 퇴색)	자연스러운/자율성 인공적인/획일성 지속성/창의성 비지속성/환원
Fall 2015	-표현: 물감이 뿌러지고 부러진 듯한 액자	정물화 (관찰, 정적, 신중함, 정형성) 액션 페인팅 (행동, 동적, 즉흥적인, 우연성) 액자 드레스 (기형의 왜곡된, 비현실적, 일탈성) 액자 (원형의, 실제의, 현실적, 일상성)	고정적/정형성 역동적/비정형성 왜곡/일탈성 현실/일상성
Spring 2015	-주제: 지푸라기 등 자연물을 모티브로 함	확산된 (범위 밖의, 이탈, 해방, 자유) 제한된 (범위 안의, 고착, 속박, 규제) 프린트 (2차원, 가상, 실체가 없는, 무생물) 꽃 (3차원, 현실, 실체가 있는, 생물)	이탈/자유 집약/속박 가상의/비존재 실제의/생명력

고 그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미와 예술적 불완전성이 표현되었고, 이는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에 해당한다. 또한 모양과 패턴이 각기 다른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은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결합으로 부조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재와 표현 기법 면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을 보인 **Spring 2020** 컬렉션은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 그리고 물형식성 중 부조화의 특성이 나타났고, 이러한 추의 특성이 합해져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은 상호관계성을 통해 완성된 추의 미를 보여준다.

**Spring 2017** 컬렉션에서는 손상되어 기능을 잃은 빈티지 드레스가 복원되어 온전하고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이는 금색 테두리 디테일로 상징화되고 있다. 또한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평면적 디자인과 인체의 구조와 상관없이 인위적 형태감을 갖는 입체적 요소가 혼합되어 표현되었다. 빈티지 드레스의 손상된 부분을 금색의 테두리로 강조한 것은 낡은 부분을 가려서 새 것처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는 추의 미학 중 불일치에 해당하여 정형화된 규칙을 깨는 일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평면적 디자인에 비대칭적인 입체적 디테일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형태를 파괴하고 인체와 전혀 상관없이 실용성을 무시한 것으로 추의 미학 중 불균형에 해당한다. 즉, 소재와 주제, 표현 모두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이 드러난 **Spring 2017** 컬렉션에서는 불일치와 불균형으로 추의 미학 중 물형식성이 표현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형성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버려진 것의 가치와 미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Fall 2016** 컬렉션에서 활용된 재활용은 과거의 것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형시킴으로써 지속성을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이 컬렉션은 지난 컬렉션들의 옷들을 지속 가능하게 재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그 방법으로 사용된 수공예 위빙 기법이

주는 자연스러운 느낌은 자율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획일적이지 않은 변칙적 성격으로 임의적 변화와 우연성에서 오는 미를 나타냄으로써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옷을 찢어 그대로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을 사용하는 듯한 정크아트적 특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일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으로 추의 미학 중 불일치에 해당한다. 즉, 소재와 표현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Fall 2016** 컬렉션에서는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 그리고 물형식성 중 불일치가 나타났으며, 각 요소가 합쳐져 물질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Fall 2015** 컬렉션에서는 액자 안에 서로 대립되는 성질을 가진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이 혼합되어 고정적이고 정형적인 것에 역동성과 비정형성이 더해져 표현되었다. 현실의 일상성을 나타내는 액자가 왜곡되어 비현실적 일탈성을 띄게 되고, 이는 현실과 비현실, 일상성과 일탈성의 공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액자의 형태를 파괴하고 왜곡하여 드레스로 만든 것은 형태와 형태의 불일치, 정형화된 규칙 혹은 틀을 깨는 것으로, 추의 미학 중 불일치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왜곡된 액자 드레스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인체와 옷의 형태를 파괴하는 불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혼합은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결합으로 부조화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추가된 역동적 변화와 우연성은 예술의 범칙성에 불완전성을 더한 부정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표현 방식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Fall 2015** 컬렉션은 추의 미학 중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로 나타난 물형식성, 그리고 부정확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일상영역과 일탈적 예술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Spring 2015** 컬렉션의 꽃과 밀짚모자는 밖으로

확산되어 본래의 형태를 이탈하고 있고, 이는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체가 없는 존재인 프린트 속 꽃은 밖으로 빠져나와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는데, 이는 즉 가상의 프린트가 생명력을 얻어 실제로 살아나는 느낌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린트 속 문양이 옷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발상, 혹은 패션디자인의 영역을 옷 주위의 공간까지 확장한다는 발상은 일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이며 정형화된 패션의 규칙을 깨는 것으로, 추의 미학 중 불일치에 해당한다. 2차원과 3차원의 경계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모호함과 무질서함은 불균형에 해당하며, ‘옷’이라는 공간의 구별이 모호해져 주위에 유동적으로 배치된 꽃들은 부정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제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Spring 2015 컬렉션은 추의 미학의 물형식성 중 불일치와 불균

형, 그리고 부정확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유에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 나타난 정크아트적 특성의 분석 내용을 추의 미학의 범주로 분류, 추의 의미와 역할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29). 추의 범주 중 물형식성은 다섯 개 컬렉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세부적 특성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부정확성은 Spring 2017 컬렉션을 제외한 나머지 네 컬렉션에서 나타났고, 왜곡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왜곡성이 포함하는 비속이나 혐오, 희화와 같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예술적인 긍정적 이미지로서 추의 미를 승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컬렉션	정크아트적 특성	추의 범주	정크아트적 특성에 나타난 추의 역할
Spring 2020	소재 주제 표현	물형식성 (불일치) 물형식성 (불균형) 물형식성 (부조화) 부정확성 왜곡성	요소간 상호관계성을 통한 조화 강조
Spring 2017	소재 주제 표현	물형식성 (불일치) 물형식성 (불균형) 물형식성 (부조화) 부정확성 왜곡성	정형성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버려진 것의 가치와 미를 새롭게 제시
Fall 2016	소재 주제 표현	물형식성 (불일치) 물형식성 (불균형) 물형식성 (부조화) 부정확성 왜곡성	감성적인 면을 강조
Fall 2015	소재 주제 표현	물형식성 (불일치) 물형식성 (불균형) 물형식성 (부조화) 부정확성 왜곡성	일상영역과 이탈적 예술영역의 경계를 해체
Spring 2015	소재 주제 표현	물형식성 (불일치) 물형식성 (불균형) 물형식성 (부조화) 부정확성 왜곡성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유에의 의지를 표현

Figure 29. 빅터앤롤프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에 나타난 추의 의미와 역할.

#### IV. 결 론

미의 기준은 그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과거 미의 하위 개념으로만 여겨지던 추는 여러 예술 분야에 걸쳐 그 창조적 가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패션이 점차 하나의 온전한 예술 분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전통적 미의 영역을 넘어 추의 미학적 관점에서도 해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확장된 미적 의의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추의 미가 나타나는 표현 양식 중 하나인 정크아트의 특성을 보인 빅터앤롤프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와 추의 관계, 그리고 그 의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패션에 나타난 추의 미학과 정크아트의 범주를 분류하여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빅터앤롤프 각 컬렉션의 동위성 분석과 이항대립적 의미를 추출,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그 의미생성 구조를 분석하고 추의 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의 범주 중 불형식성과 부정확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와치를 이용한 패치워크 기법이 사용된 **Spring 2020** 컬렉션에서는 패치워크 기법을 통해 상호관계성과 조화가 강조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의 미학 중 부조화와 부정확성이 나타났다. 빈티지 드레스를 콜라주한 **Spring 2017** 컬렉션은 평면적 디자인과 인위적 형태감, 그리고 손상되어 비기능적인 것과 온전하여 효용성이 있는 것이 혼합되어 대비되었고, 추의 미학 중 불일치와 불균형이 나타났다. 지난 컬렉션을 재활용하여 위빙한 **Fall 2016** 컬렉션은 자연스럽고 자율성이 있는, 또 지속성과 창의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해석되어 추의 범주 중 불일치와 부정확성이 나타났으며, 액자로 표현된 **Fall 2015**

컬렉션은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적인 것, 또 일탈성과 일상성이 대비되어 추의 범주 중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 부정확성이 나타났다. 꽃과 프린트를 모티브로 한 **Spring 2015** 컬렉션은 이탈을 통한 자유, 그리고 가상의 것과 실제의 것이 대비되어 생명력이 강조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의 범주 중 불일치, 불균형, 부정확성이 나타났다.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 정크아트로 표현된 추의 미는 정형화된 일반적 규칙을 깨고 변화와 유연성의 창조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요소 간 조화와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크를 소재로 사용하여 일상영역과 일탈적 예술영역의 경계를 해체,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유의 의지를 표현한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연구 결과, 정크아트는 외형적으로는 형식을 벗어나고 의도적 부조화와 부정확성을 통해 추의 미를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중의적 상징과 해석, 불확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내포시킴으로써,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패션의 새로운 미적 가능성과 가치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터앤롤프의 정크아트 디자인을 그레마스 기호학 모델을 사용해 분석하고 추의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패션에서 표현된 정크아트의 추의 미학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항대립적 방법론의 특성상 디자인의 특성이 대립적 의미구조로 해석되었다는 점과 모든 디자인적 특성을 기호사각형의 해석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크아트와 추의 내재적 특성과 연관성을 기호학의 관점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패션의 의미와 가치를 넓히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An, S. K., & Yang, S. H. (1995). The concept of ugliness expressed in modern dress: Form the middle of 1980's to 199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2), 173-189.
- Chae, K. S., & Hyun, J. Y. (2008). A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oor beauty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1), 77-87. doi:10.5850/JKSCT.2008.32.1.077
- Han J. M., & Yu Y. S. (2003). The diabolism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11), 1208-1218.
- Heritage. (1993). *Viktor&Rolf*. Retrieved 2020 May 28, from <http://www.viktor-rolf.com/fashion-artists/heritage/>
- Huh, J. S. (2003). An analysis of fashion image by plastic semiotic approach: A comparative analysis of Issey Miyake with of Yves Saint Laurent. *Journal of Fashion Design*, 3(1), 105-123.
- Hyun, M. K., & Jang A. R. (2012). Ugly tattoo make-up depicted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6(-), 105-116. doi:10.21326/ksdt.2012..36.009
- Ishizeki, M. (2004). Viktor & Rolf: And their creations. *The Kyoto Costume Institute*. Retrieved June 14 2020, from [https://www.kci.or.jp/en/research/dresstudy/pdf/e\\_Ishizeki\\_Viktor\\_and\\_Rolf.pdf](https://www.kci.or.jp/en/research/dresstudy/pdf/e_Ishizeki_Viktor_and_Rolf.pdf)
- Jung, H. N. (2005). *A study on dress design based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unk Art focused on the expression method of Junk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C., & Park, H. S. (2010). A study on the alienation in the aesthetics in the contemporary costume: Focused on the Kodue Hibino's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6(3), 95-107.
- Kim, E. J., & Park, O. L. (2012).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designers displayed in fashion collections since 2000. *Journal of Fashion Design*, 12(3), 97-114.
- Kim, H. E. (2018).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logan fashion utilising Roland Barthes' semiotics: Focused on slogan fashion in 2017 S/S, F/W collections. *Journal of Fashion Design*, 18(1), 19-36. doi:10.18652/2018.18.1.2
- Kim, J. E., & Lee, J. H. (2015). A study on the semantic analysis of the type of biomorphic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4), 19-30. doi:10.7233/jksc.2015.65.4.019
- Kim, J. Y. (2010). Design ideas and characteristics of Viktor & Rolf.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10), 47-64.
- Kim, M. Y. (2018). Informal formative expression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Viktor & Rolf collection. *Socie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1(1), 57-73. doi:10.16885/jkctc.2018.3.21.1.57
- Lee, H. J. (1997).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of the junk art represented in the second half 20<sup>th</sup> centu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33(-), 5-25.
- Lee, J. H., Kim, J. E., & Ryu, L. J. (2013). A study on the generative structure of the meaning and the binary-opposition in the convergence of fashion design and technology as a emotional method: Focused on fashion design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7), 134-147.
- Lee, S. I. (1999). The characteristics of Junk Art design in modern hairstyle and clothing.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8(3), 525-534.
- Naver Dictionary. (n.d.). Patchwork. *Naver*. Retrieved June 1, 2020,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c123a2248fa498ebedef93fb45e382b>
- Park, W. M., & Bae, S. J. (2012).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ugliness applied into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Focused on Adorno's aesthetic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8(3), 201-214.
- Seo, S. M. (2003). Grotesque image expressed in the fashion illustration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5(2), 137-144.
- Shin, H. S. (2005). *시각영상 기호학* [visual image semiotics].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Viktor&Rolf. (n.d.a). *Viktor&Rolf*. Retrieved 2020 June 3, from <http://www.viktor-rolf.com/haute-couture/viktorrolf-haute-couture-ss20-patchworks/>
- Viktor&Rolf. (n.d.b). *Viktor&Rolf*. Retrieved 2020 June 4, from <http://www.viktor-rolf.com/haute-couture/boulevard-broken-dreams/>
- Viktor&Rolf. (n.d.c). *Viktor&Rolf*. Retrieved 2020 June 8, from <http://www.viktor-rolf.com/haute-couture/vagabonds/>
- Viktor&Rolf. (n.d.d). *Viktor&Rolf*. Retrieved 2020 June 11, from <http://www.viktor-rolf.com/haute-couture/f2015ctr/>
- Viktor&Rolf. (n.d.e). *Viktor&Rolf*. Retrieved 2020 June 11, from <http://www.viktor-rolf.com/haute-couture/s2015ctr/>
- 표준국어대사전 [Standard Korean Dictionary]. (n.d.). 추하다 [ugly].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trieved May 13, 2020,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25324&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25324&searchKeywordTo=3)

# **The Beauty of Imperfection**

## **- A Study of Junk Art in Viktor&Rolf's Haute Couture Using Greimas' Semiotic Square, from Spring 2015 to Spring 2020 -**

**Lee, C Hun · Lee, Jee Hyun<sup>+</sup>**

Master's course, Dept.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nk Art characteristics of Viktor&Rolf's fashion collections and the Aesthetics of Ugliness, and identify their connection and significance in fashion. First, the study identifies the definition and aesthetic value of ugliness by examining Karl Rosenkranz's theory of 'The Aesthetics of Ugliness', and categorizes its appearance in fashion by organizing preceding research analysis papers. Second,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Junk Art, and its distinct features applied in fashion were considered. Third, after reviewing Viktor&Rolf's design philosophy, the Junk Art properties of the selected collections' representative looks were analyzed via Greimas' Semiotic Square. Lastly, each collection was classified based on the previously organized 'aesthetics of ugliness in fashion' in order to in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Junk Art and ugliness. A selection of 5 Viktor&Rolf's Haute Couture collections ranging from Spring 2015 to Spring 2020 were analyzed, utilizing both research analysis through preceding research papers, fashion magazines, photographs, Viktor&Rolf's official website, and case analysis through Greimas' Semiotic Square. The ugliness of Junk Art infracts the general rules of beauty by suggesting the underlying creativity in fortuity and variation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armony and sensibility. By using junk as its material, the border between the ordinary and the deviant area of art had been dismantled, eventually bringing about the value of the insignificant and expressing its vitality and free will.

Key words : Viktor&Rolf, haute couture, aesthetic of ugliness, Junk Art, Greimas semiotic square